‘모두의 AI 광주’ 6000억 투입… 도심 전체가 AI 실증무대

3375개 공공시설 개방·장비 3870여종 투입
건강·반려견·K콘텐츠·자율주행 데이터 확보
AI 개발 유명 기업들, 광주에서 연구·상용화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의 꿈을 실현해줄 무대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광주는 동시에 인공지능과의 동행을 통해 미래 100년을 설계 중이다. 일상 생활부터 산업 생태계까지 도심 곳곳을 인공지능으로 전환(AX)하고, 미래차 모빌리티·반도체를 더한 삼각축으로 광주를 명실상부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키워내겠다는 게 정부와 광주시의 계획이다. 여기에 AI영재고를 중심으로 배출된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스며드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방 소멸 위기까지 극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약속의 해, 2026년을 맞아 인공지능 2단계 사업부터 NPU 컴퓨팅센터 유치, 모빌리티 실증 등 광주가 추구하는 ‘모두의 AI’ 구상을 톺아본다. [편집자주]

건강·최첨단 버스정류장에서 K-콘텐츠 아카이브까지. 광주 곳곳이 인공지능 기술을 실증하는 거대한 무대로 변한다. 광주시가 꿈꾸는 ‘모두의 AI 도시’를 위한 그랜드 비전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도시생활을 인공지능으로 전환(AX)하는 AI 2단계 사업이 6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간 본격 진행된다.

광주시는 생활 개선·도시문제 해소를 위해 복지시설·공원·주차장 등 3375개 공공시설을 실증공간으로 개방하고 48개 혁신기관의 연구장비 3879종을 기업 실증용도로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참여형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모두의 AI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현재 텍스트 답변·키워드 분석 수준의 공공AI를 의견 수렴·정책 도출·토론·투표까지 가능한 ‘멀티모달 소통 특화 AI에이전트’로 확장해 사회적 갈등 해결의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 시민 전용 앱과 시청 홈페이지, 각 구청·행정복지센터에는 ‘AI 무인 키오스크’가 설치돼 실증한다.

미국 등 서구권 중심의 AI 영상생성 시스템은 한국적 정서와 풍경을 넣어 ‘K콘텐츠’로 완성될 수 있도록 ‘미디어 멀티모달리티 기반 영상 생성 기술’ 실증도 추진한다.

국내 방송·미디어 기업의 고품질 콘텐츠를 활용,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글(텍스트) 입력만으로도 영상으로 곧바로 구현될 수 있는 기술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와 광주CGI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등이 검증 무대로 활용된다.

현재의 ‘버스도착 알림’ 등 단순 정보제공 수준의 대중교통 시스템도 승객 수요와 혼잡도를 예상해 버스배차 간격을 자동조절하는 노선 최적화 솔루션으로 업그레이드돼 광주 곳곳에서 실증에 들어간다.

노선 최적화 솔루션은 광주교통정보센터(TOPIS)와 연동해 순환도로·출퇴근 상습 정체 노선·가변도로·도로공사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전송하는 최첨단 시스템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운전자 없는 로봇차량 200대가 도심 곳곳을 다니며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다. 로봇차량은 주행·골목길·신호 대기·급정거·공사·정체·보행자 횡단 등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의 데이터를 수집해 미래차 모빌리티(자율주행)의 학습에 제공한다.

반려견과 인간의 친숙함을 더해 줄 데이터도 광주에서 확보된다. ‘지각 능력을 갖춘 펫 플레이 그라운드 AI’ 개발을 위해 광주동물보호소와 입양 센터·쌍암·중외공원 등에서 반려견의 활동 정보를 입수하고, 감정 변화·이상 징후 등을 실시간으로 판단해 최적의 놀이 방법까지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진화시킬 계획이다.

병원에 가지 않고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첨단의학기술인 AI 헬스케어도 실증 단계에 돌입한다.

수면 중 발생할 수 있는 건강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비침습 센서’와 ‘스마트 매트리스’, 태아의 건강 상태를 임신부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패치형 초음파 기술’ 등에 대한 검증작업이 지역 병원과 연계해 진행 되며 어르신의 건강 징후를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시니어 마인드케어 기술’도 광주에서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AI 전문가들은 “현재의 말벗 로봇이나 동작감지센서 기술을 훨씬 뛰어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광주비엔날레, 대학축제 등에서는 방문자의 행동패턴을 분석해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참여자와 연결해주는 기술이라든지, 주변 소음·환경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소리를 제공하는 생성형오디오 AI 도시소음 차단 기술도 광주에서 시험대에 오른다.

뿐만 아니라 광주 곳곳에서 진행중인 실증데이터를 연구개발되고 있는 AI 기술이 학습하고 상용화 할 수 있는 기반시설 구축 사업도 본궤도에 오르고, AI 1단계 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가AI데이터센터를 더욱 고도화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AI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현장을 AI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 인간형로봇(휴머노이드)을 시험생산하고 성능까지 평가할 수 있는 각종 인프라도 깔린다. 광주가 글로벌 AI 로봇전쟁의 최전선 중 한 곳이 되는 셈이다.

손두영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장은 “AI 2단계의 핵심은 도시 전체를 인공지능으로 전환하기 위한 선도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미래의 모습이 광주에서 먼저 구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전남도, 청년 결혼축하금 200만원

전남에 6개월 이상 주소 둔 49세 이하 부부 혜택

전라남도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전남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전남도가 2021년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시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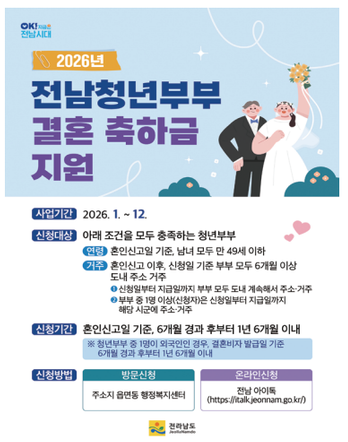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현재 49세 이하 부부다. 신청일 직전까지 전남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둬야 한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받을 수 있다.

결혼축하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남 아이톡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청년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이면 신청 기간을 기존 ‘혼인신고일’ 현재 1년 6개월 이내에서 ‘결혼비자 발급일’ 현재 1년 6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결혼비자 발급까지의 기간과 실질적 혼인생활 개시 기간의 격차를 줄여 결혼 초기 외국인 배우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다문화 가구의 지역사회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외에도 출생기본소득, 청년문화복지카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운영 등 청년층 인구유입과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전남이 최초로 시행해 약 1만 8천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며 “청년이 전남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전남도, 중소기업 근로자 든든한 한끼 지원

‘천원의 아침밥’ 14일·‘든든한 점심밥’ 21일까지 접수

전라남도는 올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천원의 아침밥’ 또는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지원한다.

천원의 아침밥은 현장 중심의 업무로 식당 접근성이 낮은 산단 근로자가 건강한 식사를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전남도, 기업 지원을 통해 근로자에게 아침밥을 1천 원에 제공한다.

사업 신청은 14일까지며,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 일체를 작성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정원에서 서류 검토 등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2월부터 아침밥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다.

또한 농식품부는 신규로 올해 취약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심 외식비를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 공모신청을 통해 선정된 사업 대상자에 5월부터 외식비의 20%를 지원(월 4만 원 한도)한다. 관심있는 중소기업에선 오는 21일까지 관할 소재지 시군에 문의하면 지원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선정된 산단 입주기업 등은 직장인의 든든한 점심 사업에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고물가 시대에 식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아침과 점심 식비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확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에서도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통해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식사 17만 8천 식을 지원했다. /신종팔 기자

광주 1분기 소매유통업 체감경기 ‘부진 지속’ 전망

대형마트·백화점 vs 슈퍼마켓·편의점 엇갈려

광주지역 1분기 소매유통업 체감경기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광주상공회의소(회장 한상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47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를 조사한 결과 82를 기록하며 전분기(92) 대비 10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분기 연속 기준치(100)를 하회한 수치다. 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더불어 동절기 진입에 따른 계절적 비수기, 소비쿠폰 사용 종료 등의 부정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매출전망지수(84→76)는 동절기 유동인구 감소와 고환율·고물가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지속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하락세가 지속됐다.

반면 수익전망지수(80→87)는 다가오는 설 명절 특수에 따른 단기적 매출 회복 기대감이 반영되며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고 있는데, 이는 인건비·공공요금 등 제반 운영 비용 상승으로 고정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준다.

업태별로는 명절 특수에 대한 기대감 유무에 따라 전망이 엇갈렸다.

대형마트(50→100)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 수요 증가 기대가 반영되며 기준치를 회복했다. 백화점(100→100)은 명절 소비와 충성 고객층의 안정적인 구매력을 바탕으로 전분기와 동일한 보합세가 예상됐다.

반면 편의점(94→71)은 동절기 야외활동 감소와 고물가에 따른 소비 여력 축소로 체감경기 악화가 전망됐다. 특히 슈퍼마켓(109→67)은 소비쿠폰 사용 종료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고객 유입이 크게 줄면서 가장 큰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은 1분기 경영 활동의 가장 큰 현안 및 애로사항으로 소비심리 회복 지연(40.4%)을 꼽았다. 이어 ▲비용 부담(23.4%) ▲시장 경쟁 심화(12.8%) ▲상품 매입가 상승(8.5%) ▲고금리 지속(6.4%) 순으로 응답했다. 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이 내수 침체와 고비용 구조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